

지역 소식통

김제농협 부녀회, 반찬나눔 행사가져

김제농협 부녀회는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를 가져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제농협이 후원한 이 행사는 7월 14일 요촌동을 시작으로 15일 교월동, 19일 김산동, 24일 죽산면, 31일 신봉동, 8월 9일 부랑면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쳤다.

반찬나눔 행사는 김제농협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 중 하나로 매년 동면별 부녀회에서 직접 반찬을 조리해 끼니를 거르기 쉬운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초수급가구, 노인회관 등에 전달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60여명의 마을부녀회장이 반찬나눔 행사에 참여하여 시원한 여름 김치를 담아 440여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폭염속 안전사고 예방 총력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태한)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년보다 폭염특보가 빈번하게 발표되는 가운데 교월동에서는 지난 3일부터 관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 36개소와 공공기관 등을 매일 수시로 순회하면서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다시금 점검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순회기간 동안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며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접수, 신속히 처리하여 줌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으며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현장행정을 펼치는 모습에 매우 감사해 함으로 지역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강화와 결속력을 다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조순가정 힐링투어 진행

완주군드림스타트가 조순가정 60명을 대상으로 '조순가정 힐링투어'를 진행했다.

10일 완주군은 전북개발공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조순가정을 위한 힐링투어를 위해 전남 나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스파 및 워터파크를 체험하며, 가족들과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회정 교육이동복지과장은 "평소 가족 여행 기회가 적은 조순가정이 여행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계속되는 폭염 가축관리 철저

김제시, "폐사 위험성 높아 사전 예방 중요... 축사 사전 환기구 점검해야"

김제시에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가축이 폐사하는 등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관내 가축 폐사 신고 건수는 78건으로 피해추정금액만 3억 원에 달하며, 폐사 가축은 6만4,247두·수이고, 종류별로는 돼지 46호 527두, 닭 31호 5만9,720수, 오리 1호 4,000수이다.

따라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은 여름철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 췌소 신유량 감소, 산란을 저하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폐사의 위험성이 높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여름철 가축관리와 피해예방을 위해 축사는 사전에 환기창, 통풍창 등 환기구를 점검 정비하고 차광막을 설치 태양열을 차단하는 동시에 지붕 위에 물을 살수하여 축사내부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특히 가축의 고온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시원한 물과 신선한조사를 충분히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김제시는 삼락농정 보조사업인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과 축사화재 안전시스템을 추진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또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축산가 보호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가입은 가까운 NH농협순해보험, KB전소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으로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폭염피해 예방과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기후 모니터링과 사전대비로 긴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김제시 읍면동 전역에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김제시 읍면동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 행태와 건강 관련 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등을 조사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수행을 위한 보건통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김제시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김제시의

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 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 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파악 및 건강 통계 생산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맞는 보건사업의 수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유일의 지역별 건강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자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 있는 표본가구를

선정 후 해당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하는데 선정된 497가구에 선정통지서 발송 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활용하여 1:1 면접형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건강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 실시하오니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제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일본 오사카부 교직원 모임, 김제 원평집강소 방문 전라를 찾아가다 라는 주제로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지난 9일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현역교사들과 교직원 08모임으로 구성된 평화여행팀이 '전라를 찾아가다'라는 주제로 전라북도기념물 제 137호로 지정된 김제 원평집강소를 방문했다.

평화여행팀은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일본연합군과 전봉준장군부대의 격전지였던 구미란전투지 동학농민군들의 무덤(김제시 금산면)을 맨 먼저 참배했다.

참가자들은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강소를 향해 도보로 순례하며 1893년 전라도 동학농민들의 정치적 집회와 1919년 3.1만세운동이 벌어

졌던 원평장터를 돌아보았다. 특히 일제시대 수탈정책의 상징이었던 1번국도가 관통하는 원평에서 삼흥장미소를 살펴보았으며 때마침 5일장이 열린 장터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학수재에서 이를 엮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의 합동 유래에 참배하고, 다시 집강소에 모여 구미란전투의 집강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으로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순례를 마쳤다.

이번 평화여행팀은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과 교직원, 교사08모임, 히라카타시 교직원

노동조합에 속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여름방학 시즌을 맞이하여 한국의 근·현대사를 학습하고자 한국을 직접 찾아오고 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평화여행팀 방문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그 상징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벽골제, 아리랑문화마을 등 관내에 산재한 역사 관련 주요 관광지가 역사교육 및 문화향유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 아울러 도내 관광객 유입을 위해 금년 시행 중인 전북투어패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완주의 문화·레저 체험 '만끽'

서울의 초등학생 60여명... 미꾸라지 잡기·과거시험 체험 등

서울의 초등학생 60여명이 완주군을 찾아 2박3일간 완주의 문화, 음식, 레저까지 완주를 만끽했다. 10일 완주군은 지난 8일부터 서울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60여명이 완주를 찾아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방문은 완주군과 서울시가 지난 2013년 문화교류협력을 맺은 것에 따른 것으로 매년 각 지역의 어린이들이 서로의 도시를 방문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학생들은 완주 지역내 문화체험마을인 화산 상호마을, 소양 인덕마을, 구이 안덕마을, 숲테마박물관, 대송한지마을 등 8곳을 찾아 다양한 체험활동을 받았다.

별보기, 미꾸라지 잡기, 과거시험 체험, 전통 향기주머니 만들기, 서바이벌 체험, 한지 다용도함 만들기, 한지 액자 만들기, 탈 만들기, 참나물 피자 만들기, 발효 빵

만들기 등의 체험을 즐기면서 완주군의 다양한 문화를 즐겼다.

학생들을 인솔한 서울이수초등학교 교사는 "3년 전에도 문화체험 일정으로 완주군에 방문했다"며 "당시 완주의 문화체험이 인상 깊어서 이번에도 기쁜 마음으로 왔었는데 여전히 따뜻한 인심은 물론, 즐길거리는 더욱 풍요로워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오인석 문화예술과장은 "도농 문화교류 사업이 앞으로도 더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서울의 어린이들에게 완주군에서의 체험들이 여름방학의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 초등학생들의 서울 방문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며, 학생들은 '역사에서 미래를 발견해 보자'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 개소식

완주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내에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이 문을 열고, 10일 봉동읍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정재운 전주세무서장, 안호영 국회의원, 정성모 군의회의장, 도의회 송지용 운영위원장, 박재완 도의원, 군의원, 기사회육 및 문화향유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 아울러 도내 관광객 유입을 위해 금년 시행 중인 전북투어패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그동안 완주군은 지역내에 세무서가 없어 납세자들이 전주세무서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고, 이를 해소하고자 전주세무서와 협의해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내 일부공간을 리모델링했다.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에는 국세전

신방 전용회선, 전자장비,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등을 정비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 개소를 군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그동안 완주군에 세무서가 없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전주세무서에 수차례 건의해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을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250-0230)에는 전주세무서에서 파견된 1명의 직원이 주1회(매주 목) 근무하면서 국세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국제 신고서 접수, 세무상담 등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팬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협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 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지역 휘트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전(전)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	--